



작몽

현대청운고 2-2 황찬영

머릿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실 가닥
마음이 달하는 가닥들을 잡아당겨본다
실들을 모으고 모아 외곽선을 그려본다
영키고 꼬이고 어긋나도 차분하게 풀어본다

뭉고 자르고 다듬어진 틀
틀 속을 나로 칠해본다
아름답게, 더 아름답게 나를 더 채워본다
어떤 나도 꺼내어 담아본다

디자인, 나의 꿈
여럿 구성한 작품들을 걸어본다
발이 빠지는 그 길에 나 또한 빠져본다
아름다워 이 길을 걸어보았다

